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7강 **장일범** KBS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DJ

“악기 하나 배우세요... 평생 친구 얻으실 겁니다”



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오전9시~11시)은 편안한 아침과 딱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선곡과 유명 아티스트의 라이브 연주, 해박한 지식과 친근함으로 무장한 DJ 장일범(45)씨의 진행까지 더해져 클래식 팬들은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차 7일 광주를 찾은 장씨를 인터뷰했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 등을 통해 '클래식 전도사'로 알려진 장씨는 이날도 대전문화예술전당에서 '오페라 강좌'를 진행하고, 택시를 타고 광주에 왔다. 시종일관 유쾌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라디오에서 듣던 딱 그 모습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의 절반은 클래식, 절반은 프로야구일 정도로 '야구광'이기도 했다.

이날 장씨의 강연 주제는 '세계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 그가 선곡한 곡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악기의 침묵'의 '노(老)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작곡한 '그리고 왈츠는 계속된다'였다. 난생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감정을 건드리는 멜로디와 자신의 곡을 세계적인 아티스트 앙드레 류가 연주하는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드는 안소니 홉킨스의 모습에 머물렀다.

"안소니 홉킨스는 어린 시절부터 작곡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 결국 인생의 말년에 꿈을 이룬

거다. 이 영상을 선택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꿈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당신은 꿈이 있는가 묻고 싶기도 했고, 또 그 꿈을 버리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브코의 '라 보엠'은 요즘 오페라의 흐름을 보여주고 싶어 선택했다."

장씨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클래식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일 거다. "클래식도 록이나 팝처럼 하나의 장르라고 생

장씨는 어릴 때부터 악기를 배우고 음악과 친해지는데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 해놓으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게 음악이다. 삶을 풍요롭게하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생각한다. 특히 악기를 하나 배우는 건 평생 좋은 친구를 얻는 것과 같다. 정서함양으로도 악기 만한 게 없다. 기타도 좋고, 바이올린도 좋고, 요즘 많이 배우는 우크렐레도 좋고."

"장일범의 음악풍경", '생생클래식'을 거쳐 3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 반가웠다. 바하 전곡 연주회를 진행한 앙성원 선생도 깊어지는 음악세계가 존경스럽다. 안드레이 가브리엘로프와의 만남도 즐거웠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에 얽힌 이야기를 어디 가서 그렇게 생생히 들었나(웃음)"

그가 꼭 초청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누구일까. "백건우 선생하고는 친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인연이 없었다. 스튜디오에서 내가 호스트가 돼 인터뷰를 하고 연주도 직접 듣고 싶다. 아바도, 안소니, 파워 넘치는 구스타프 두다펠과의 인터뷰도 꿈꾼다. 이번달에 한국을 찾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유리 바슈메트는 예전에 통역을 해준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장씨는 러시아 유학 당시 야구를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역이었고, 이승엽이 요미우리 라이언츠에 있을 때는 도쿄에 가면 공연과 함께 야구 관람도 스케줄에 꼭 넣었던 야구매니아다.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다. 고향은 서울인데 군산상고를 굉장히 좋아했다. 프로야구팀은 해태타이거스를, 선수는 최동원을 좋아했다. 지금은 넥센팬이다. 신축 구장이 문을 열면 내년엔 꼭 광주에 와서 경기를 보고 싶다. 광주비엔날레도 함께 관람하면 좋을 것 같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클래식과 친해지고 싶다면 일단 공연장에 가보자 작곡가 꿈 이룬 **老**배우 안소니 홉킨스 열정 인상적”

각하는 게 필요할 듯 하다. 그리고 일단 공연장에 가보는 게 중요하다. 중학교 때 합창을 주로 들던 내가 처음 클래식을 접했을 때 압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클래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옛날 아티스트들도 좋지만 동시대 사람들의 연주를 듣는 것도 클래식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것 같다. 비틀즈가 좋은 줄은 알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거리감이 있잖은가. 율리아 피셔의 '사계'나 두다펠의 음악 등 동시대 연주자들에게는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다."

년전부터 '장일범의 가정음악'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2년 전 스튜디오에 피아노를 들여 놓은 후 유명 연주자들의 '라이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 발레리나 김주원 등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이들과 프로를 진행하는 게 참 즐겁다. 내 옆에서 누군가와 클래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새로운 아티스트를 만나고, 음반을 듣는 게 진짜 행복하다. 며칠 전 스튜디오에서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한 김선옥은

승촌동 청년회 '어머니날 경로잔치'



광주시 남구 승촌동 청년회(회장 노양근)는 8일 어머니날을 맞아 마을 게이트볼장에서 2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제13회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방 이의순재단, 홀몸어르신에 생필품



사회복지법인 세방 이의순재단(이사장 이의순)은 어머니날을 맞아 8일 저소득 홀몸어르신 100여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 활동을 펼쳤다. /최연길기자 cki@

소리 없는 기부... '숨은 의인'

강진군 군동면 문화마을 이봉석씨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리 없는 선행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강진군 군동면 문화마을 이봉석(44)씨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전라남도 가 주는 '숨은 의인'상을 수상한 이씨는 2000년부터 명절 때마다 관내 독거노인 등에게 50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현재까지 20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지난 2012년부터 국제로타리 3610지구 강진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사랑의 집 짓기'사업을 실시해 현재 3동을 신축지원하는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

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봉석씨는 "남을 돕는 것이 자랑할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상까지 받다 보니 몸뚱이를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사랑 나눔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숨은 의인·선행자'표창은 전라남도 가 전남의 미담사례를 홍보 전파하고, 의료



운 땅 전남인의 훈훈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발굴 시행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chou@kwangju.co.kr

건보공단 광주지사 '청림실천 거리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지사장 정일만)는 지난 7일 지사 회의실에서 고객감동 실천 행사로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청림실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농협 순천시청출장소 공무원 응원 캠페인



농협 순천시청출장소 직원들이 최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이끌어가기를 응원하고 있는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음료와 핸드크림을 전달하는 등 응원 캠페인을 펼쳤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윤봉근 광주시의원 밀알중앙회 총재 암 투병 구순 노모 위한 '사모곡'

행복문화사업단 준비 공개

광주시의회 윤봉근(전 의장) 의원이 밀알중앙회 총재에 취임한다. 밀알중앙회는 지난 7일 "오는 11일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강은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의원의 사단법인 밀알중앙회 총재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신임 윤 총재는 취임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장기기증운동 등 밀알중앙회 4대 주력사업을 전개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밀알인재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알중앙회는 지난 1958년 결성된 시민봉사 단체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3만5000여명의 회원이 있다. /최연길기자 cki@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구순의 노모를 위해 만든 노래 '사랑하는 어머니'의 뮤직비디오가 어머니날을 앞두고 유튜브에 공개됐다. 이곳은 행복문화사업단이 국민창조 노래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발표된 노래다. 행복문화사업단 소속 가수 이애자씨는 32년간 어머니와 살며 각종 공연을 다니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이애자 사랑받는 어머니"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이애자씨는 "부모님을 향한 애절한 가사를 듣고 관객들이 눈물 짓는다"며 "제 어머니도 노래를 듣고 기뻐하시며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이기춘·이화숙씨 아들 유석군 김용기(광주일보 중부취재본부장)·한영숙씨 딸 민희양=11일(토) 오후 3시 서울 육군사관학교 육사회관 예식홀.
- ▲박현순·오순임씨 장남 상현군 김성영(광주시 교육청기획관)·신명숙씨 장녀 다현양=11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상호회관 웨딩홀 무궁화홀.
- ▲손일모·고영순씨 삼남 범주(한국세정신문 광주주재 기자)군 황승의·차정애씨 장녀 진양=11일(토) 낮 12시 20분 궁전웨딩컨벤션 2층(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25-1)
- ▲박순서(전 서광주세무서장)·신계순씨 차남 제연군 임영삼·오정희씨 장녀 선화양=11일(토) 낮 12시 광주 피엔제이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 ▲이영갑·박성순씨 장남 승준군 이형신·문명옥씨 차녀 윤미양=11일(토) 오후 1시 화순교회 3층대강당.
- ▲윤목현(전 무등일보 부사장)·한

- 광숙씨 장남 태희(유한김벌리)군 안병호(개인사업)·김기연씨 차녀 미혜양=11일(토) 오후 1시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4층 그랜드볼룸.
- ▲유광희씨 차남 윤길성군 심우정(세무사)·김지현씨 장녀 명진양=11일(토) 오후 1시 광주 아름다운컨벤션 베르사체홀.
- ▲고영준(장흥고씨의열공 장영중손)·이숙재씨 장남 연호군 이용진·김금순씨 장녀 주현양=11일(토) 오후 2시 30분 서울목동 웨딩의 전당 1층 프리아홀.
- ▲강달용·임경순씨 장남 운상군 박홍철(무등흑염소가든)·이경화(국악예술단)씨 장녀 차리양=11일(토) 낮 12시 30분 호텔무등파크 4F 다이아몬드홀.
- ▲유복주씨 장남 정호기군 임명규(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이재숙씨 장녀 혜림양=19일(일) 오후 3시 더스타웨딩홀 14층 스타홀, 피로연=10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비발디파크 골프장.

동창동문회

▲2013년 광주인성과 총동문회(회장 선정민) 인성학력 가족화마당=12일(일) 오전 9시 모교 대운동장(우천시 체육관) 062-433-3228.

중친회

▲(사)전주리씨 대동중학원 광주·전남 지원 북구분원 정기총회(분원장 이근중) 개최안내=11일(토) 오전 11시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3층 010-4626-1165.

일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

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복지회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유허장비(웹프 등) 무상대여. 접수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모집

▲총만재가족지원센터=방문요양·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가입 상담 062-942-9982.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꽃포켓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정원 선발=발로 발을 차 홈에 넣는 풋포켓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포켓장 010-4604-4608. ▲진월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국비지원혜택·고용보환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시 관광진흥과 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061-330-4169.

부음

▲박후명씨 별세 최익주·필순·기순·희정씨 모친상=발인 10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오순희씨 별세 권중구·명구씨 모친상=발인 9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박성호씨 별세 준영(환경부공무원)·혜진·정현씨 부친상 황윤애(담양군청)씨 시부사 김명철(서울루비성형외과)·김지호(삼육초등학교)씨 부부상=발인 9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謹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朴 善 례(여/84세) 女/子: 김호조권영순 女/孫: 김영옥김희수호옥김말민숙권영철 호실: 201호 장지: 영락공원	故 유 갑 환(남/60세) 子: 유성민 女: 유지연 子: 김동숙 호실: 401호 장지: 문민정사
故 張 長 子(남/83세) 子/孫: 장영복김민행김영숙 孫: 장준호정순호 未亡人: 한영자 호실: 402호 장지: 영락공원	故 朴 宗 환(남/65세) 子/孫: 박찬일/김인영, 찬식/윤경숙 未亡人: 여미숙 호실: 101호 장지: 영락공원

孝 金 浩 宗 禮 氏 喪 禮 堂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